

절망 끝에 선 40대 가장이 국취를 만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선영선 상담사_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오상철 씨(가명, 40세)는 직장 내 괴롭힘과 7천만 원의 빚,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으로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국취 참여 중 급단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우울감도 큰 상태였죠.”

선영선 상담사는 상철 씨에게 시급한 건 취업보다 심리상담이라고 판단하고 진료비가 지원되는 정신보건센터 상담을 안내했다.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위원회도 연계했다. 그 결과, 8년간 월 40~70만 원 가량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중장비 조립원으로 12년간 일했던 상철 씨는 내일배움카드로 굴삭기,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해 기계 조립원, 지게차 운전원, 납품배송 운전원에 도전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이혼소송이 끝났다. 양육권은 맡았지만, 5살짜리 자녀를 원룸에서 키우기에는 양육 환경이 좋지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주택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깊어진 상철 씨는 여러 협업기관에 열심히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어요. 기쁘게도 지게차 자격증 실기시험까지 한 번에 합격했죠.”

구직활동에 나선 상철 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후 출근이 가능한 곳을 찾던 중 10시~16시까지 근무하는 납품배송 운전원 일자리를 찾았고, 마침내 합격했다.

“이혼과 채무로 절망의 늪에서 헤매던 상철 씨는 국취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꿔나가고 있어요. 일도, 양육도 잘하는 슈퍼맨 아빠가 될 거라고 믿어요.”



국취 알림판



따뜻한 봄날, 취업이룸카가 찾아갑니다

국취 커피터럭이 대학, 지역축제현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달려갑니다. 봄날처럼 따뜻한 커피와 즉석 취업상담이 이어지는 현장에서 만나요~



커피터럭 일정

3.26(화)	계명대	4.16(화)	수원여대
3.27(수)	영남대	4.17(수)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3.27(수)	전주대	4.25(목)	부천대
4.2(화)	한세대	4.26(금)	동강둔치
4.3(수)	한경국립대	4.30(화)	군산대
4.9(화)	강원대	5.7(화)	홍익대
4.9(화)	한남대	5.10(금)	구리 유채꽃 축제현장
4.11(목)	동의대	5.21(화)	상명대
4.12(금)	세명대	5.23(목)	부평구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 개설 이벤트

국취 인스타그램이 개설되었어요.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취업준비생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기 간 4.24(수) ~ 5.1.(수)

채 널 고용노동부 인스타그램(@moel.job.erum)

기 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증정

* 5월, 6월 이벤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파헤치기 시리즈(단어 퀴즈)가 진행됩니다.



취업으로 가는 길 국·취·로



일과 생계 지원을 한번에! 대국민의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당당한 홀로서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응원합니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4.2.(화)~4.5.(금) 서울시자립지원 전담기관 교육장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 일을 그리는 캔(can) 버스’를 진행했어요.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



제 1부에서는 취업의욕을 높이는 찾아가는 집단상담프로그램 ‘반딧불’(자립준비청년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돕는 고용서비스 길잡이)이 펼쳐졌어요.

제 2부에서는 취업준비 단계별 고용서비스를 편리하게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상담도 진행했어요.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청년 한마디



“혼자서 구직활동을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덕분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도약 보장패키지를 알게 됐어요. 취업에 성공해서 당당하게 자립하고 싶어요.”

국취 포커스

주제: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기업이 한자리에! 지역 구인기업과 함께한 만남의 날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24년 4월 1일(월) 본 센터 내에서 대전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대전·충청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 4곳*이 함께하는 만남의 날을 개최했어요.

* 한화솔루션(에너지·화학), 한국콜마(화장품), 웹툰보물섬(웹툰), 축산물품질평가원(공공기관)



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상시 협업체계를 갖춘 후 이뤄진 첫 번째 만남의 날이었어요.

청년들은 센터에서 준비한 취업준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책 관계자들과 자립 및 취업 고민을 나누기도 했어요.

** 취업준비를 위한 마음치유(향기 테라피를 활용한 자신의 감정 탐색 및 스트레스 해소), MBTI로 보는 자기분석과 진로탐색 등

이어진 기업설명회에서는 담당자들이 기업별 일자리에 대해 설명하고 청년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다음 행사는 대구·경남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참여기업 한마디

“이번 채용공고부터 자립준비청년 채용 가산점을 신설했어요. 열정적이고 성실한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사담당자)



취업 막막했던 자립준비청년 “내일 찾았어요”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시작한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이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5년까지만 지급되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진로를 정하지 못했거나 일자리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자립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과 고용센터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해 온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자립준비청년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A씨는 자격증도, 경력도 없어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지만, 국취 단계별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사무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예전엔 목표 없이 돈이나 벌자는 생각으로 빨리 취업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하고 싶은 걸 하자,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립준비청년 B 씨는 국취를 통해 이력서 컨설팅과 전산회계 교육과정 등을 수료하고 사회적기업에 취업했다.

“몇 년 후면 정부 지원이 끝나니까 생활비 등을 혼자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디딤돌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 잘 적응하고 일도 잘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 국민일보, '24.4.11. 기사 중 일부 인용

